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98:1-4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31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65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감사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교만에 이르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디모데후서 4:6-8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봉 헌(offering) 4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434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구역회를 인도하십니다. 구역회 준비를 위해 예배 후 공천위원회 및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공천위원회 : 이진국권사, 신성화집사, 김희상권사
도기준집사 이춘희집사
 - 목회협력위원회 : 신성화집사 이진국권사, 허영희성도
이춘희집사, 송현진집사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디모데후서 4:-8

6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1. 사도바울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6-7절) 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2. 바울에게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 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8절) 나는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쫓기어 살다가 방향도, 목표도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 채 허무함만 느껴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슬픔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흔적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결과를 알았기에 조금도 망설임이나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곤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항상 자신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는 중단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디를 향해 그토록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